

2015 WINTER Vol. 28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News

# 박물관 풍경

## 風景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 창으로 보는 풍경

# 인천의 가치, 사람과 정신

최근 인천 사회에 회자되는 말 가운데 ‘인천 가치 재창조’가 있다. 풀어  
서 이야기하자면 ‘인천의 가치를 다시 세우자’ 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다. ‘가치’라는 것이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개를 가우뚱하게 되지만, 돌려 생각하면 인천이  
갖는 가치가 그만큼 저평가되고 있기에 이를 끌어 올리려는 노력의 일환  
으로도 보인다. 인천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 중앙 지향적인 인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수도 서울과 가까운 탓인지 인천 사람들은  
유독 중앙 지향적이다. 인천 사람으로 역사 속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비류도  
그랬다.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에 고구려를 떠나 동생 온조와 함께 남으로 내  
려온 비류가 미추홀에 터를 잡았지만, 땅이 습하고 물이 짜다는 이유로 온조  
가 나라를 세운 위례성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역사 속 첫 인물의  
행적이 그래서인지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중앙을 향  
해있다. 단체장으로 임기가 남았음에도 총선에 나가기 위해 사퇴를 하는 정  
치인이 부지기수이며, 비슷한 커트라인이면 서울의 대학을 선택하는 수험생  
과 인천에서 창업하여 기반을 다진 뒤 서울로 옮겨가는 기업체를 주변에서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큰물에서 뜻을 펼치고 싶은 그들을 이해 못하는 바  
는 아니며, 능력있는 사람들이 중앙에 진출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은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다. 문제는 유입 인구가 많은 탓에 정주의식이 약해  
서인지 맹목적인 중앙 지향이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인천의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되면, 돈이 모이면 언젠가는 서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 잃어버린 ‘인천 정신’

떠나는 애인을 붙잡을 수 없듯이 중앙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탓할 수는 없  
다. 이는 막연하게 서울 생활을 동경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인천에 살아  
야겠다는 생각, 다시 말해 애정과 자부심을 심어주지 못한 지역 사회의 잘못  
이다. 자신이 태어나거나 지금 터를 잡고 살아가는 인천에 대한 애정과 자부



## CONTENTS 2015 WINTER Vol. 28

- 02 창으로 보는 풍경**  
인천의 가치, 사람과 정신
- 04 전시 소개**  
토지금고 마을박물관, 토지금고를 열다!
- 06 기획기사 I**  
인천의 인구변화로 바라본 인천의 포용성
- 08 인터뷰**  
인천과 인연이 된 사연
- 09 야미카툰**  
비류와의 저녁식사
- 10 기획기사 II**  
근대 공연장의 출발, 인천 협률사(協律舍)
- 12 시간을 달리는 공간 ⑥**  
배다리 <아벨서점>
- 14 청소년 기획**  
역사와 함께할 미래의 인천 / 인천아, 넌 어떤 인천이 되고 싶니?
- 16 교육 소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 검단선사박물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 18 박물관 소식**  
전시, 교육, 행사
- 20 소장 유물**  
금계랍(금계랍, 金鷄蠟, quinine)

## COVER STORY

### 이천년 고도역사의 발원지 문학산

「빛을 젖은 원앙 기와, 옛 왕의 화신 진달래는 한 편에서 봄을 전하고  
오래된 우물에서 올라오는 물안개 비류의 . . . . .」

— 1765년 인천부사였던 아버지 이시질을 따라온 이규상이 문학산성에 올라 지은 시  
(文鶴山城), 「夢稿」 권 19 일부 발췌 —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는 명목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다  
보니 위 시구에 등장하  
는 문학산의 운치는 우  
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것  
이었다. 인천의 한복판  
에서 금단의 땅으로 각  
인되었던 문학산 정상이

2015년 10월 15일 일부 개방되어 과거 이규상이 풍경을 보며 아름다움  
을 논했던 산 정상을 누구나 가볍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문학산에 군  
대가 주둔하는 동안 역사의 중요한 증거들과 흔적이 파괴와 훼손으로 사  
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군사시설이 주  
둔한 것 역시 문학산의 관광유적과 연계되는 또 하나의 역사이자 재현이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고증과 복원이 이루어져 개항이후 구음으  
로 초라해진 문학산 일대의 참모습을 되찾고 인천의 역사적 가치를 체  
험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공간이기를 기대한다. 과거로부터 다가온 역사는  
현실의 공기가자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다.

※ 「박물관 풍경」의 2015년 표지사진 및 커버스토리는 인천의 낯선 풍경을  
주제로 합니다.

심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인천 정신'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인구가 늘어나고 공간이  
확대되면서 도시가 성장해 왔지만, 언제부터인지 사람들 사이에서 인천 정신이 사라져 버  
렸다. 사람들의 뜻을 모아 만든 인천은행이 경기은행으로 이름을 바꾸고 역사 속에서 사라  
졌어도, 사람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TV방송국 인천방송이 경인방송이 되어 운영에 어려움  
을 겪고 있어도 대부분의 인천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았다. 인천교육대학이 경인교육대학  
으로 이름을 바꾸어도 인천에 본부를 둔 정부기관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간다고 해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인천 정신이 사라진 탓이다.

### 인천 사람과 인천정신

일제강점기 서울로 유학을 떠나 기차로 통학하던 인천의 학생들이 모여 '경인가치통학생  
회'를 조직하였다. 비록 친목단체였지만 고유선, 박상훈, 이길용, 고일 등 문학, 예술, 언론의  
각 분야에서 이름을 떨쳤던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들을 바탕으로 인천의 민족운동  
과 문화운동이 시작되었다. 인천시립박물관 이경성 초대관장은 1954년 박물관을 떠나 이  
화여대와 홍익대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부임했던 1980년대 초까지 30년 가까운  
시간을 삼화고속 버스로 오갔다고 한다. 서울로 이사하라는 후배들과 제자들의 요구에 '귀  
찮아서'라고 받아 넘겼지만, 에둘러 말했던 그의 속내에는 인천을 떠나기 싫은 진심이 담  
겨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마음에 품었던 인천에 대한 생각, 애향심보다 조금 더 강한 인천  
에 대한 애정과 자존심, 그것이 '인천 정신'이 아닐까?

기업의 가치는 열심히 일하는 사원들로부터, 학교의 가치는 학생들에게서 나오듯이 사회  
의 가치는 그 구성원들에게서 나온다. 인천의 가치는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  
는 것이다. 인천 정신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인천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  
며, 이것이 진정 인천의 힘이 아니겠는가? 인천의 많은 선배들이 지키고 이어왔던 인천 정  
신을 어떻게 해야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글 • 배성수(전시교육부)

창간일 2009년 3월 1일 발행인 조우성  
기획·편집 전시교육부 이성용 신은영 자원봉사자 엄경미 최정미  
표지사진·글 조오다 제호 이태웅 디자인·인쇄 은정문화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옥련동 525번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TEL. 032-440-6750 FAX. 032-440-8871  
http://museum.incheon.go.kr / www.facebook.com/icmuseum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마을박물관 1호

# 마을박물관, 토지금고를 열다!

글 • 오아란(전시교육부)

시간 화요일~일요일 13:00~16:00

휴관 월요일 및 공휴일

관람료 무료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5동 607-9

찾아오시는 길

버스 519, 517 용현5동사무소 하차  
14, 16, 24, 38, 5, 5-1 토지금고시장 하차

문의 ☎ 032-440-6749

지난 가을, 남구 용현5동 용정근린공원에 작은 컨테이너가 들어섰다.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서 설치된 이 컨테이너는 '용현5동 마을박물관'이 아닌 '토지금고 마을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10월 19일 문을 열었다. 왜 토지금고 마을박물관인지에 대한 의문은 박물관에 직접 방문하면 바로 풀릴 테지만, 성미 급한 독자들을 위해 예습 차원에서 먼저 설명하는 센스를 발휘하고자 한다.

용현2·5동은 동명보다 토지금고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려왔다. 하지만 토지금고라는 별명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왜 긴 역사적 유래를 가지고 있는 동명보다 더 익숙하게 불리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찾아보려는 노력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과연 새마을금고의 동생이라도 되는 듯한 이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 토지금고는 어떤 의미일까?

용현5동 일대는 대부분이 바다였다. 일제강점기에 염전으로 개발되면서 매립되었던 것이 70년대 토지개발사업을 통해 주택단지로 변모하였다. 이때 토지개발을 주관했던 곳이 현재 LH주택공사의 전신인 '토지금고'였다. 토지금고의 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된, 토지금고가 만든 주택이 준비하게 늘어선 이곳을 토지금고라 불렀다. 하지만 초창기부터 토지금고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이 아니고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드물다.

마을박물관은 토지금고의 이러한 유래부터 토지금고의 다양한 역사·문화적 특징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기획되





었다. 마을박물관은 본래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남구청, 동구의 스페이스빔, 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와 함께 힘을 모아 토지금고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찾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우리 박물관은 지난 1년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강좌, 도시탐구생활, 우리 동네 흔적남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박물관에서 진행하였던 프로그램들을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작은 소통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남구청의 협조를 받아 주민들이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용정근린공원에 '마을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마을박물관은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큐레이터에 의해 운영된다. 마을큐레이터는 토지금고 마을박물관의 전시 기획에서부터 전시 해설 및 교육 운영에 이르기까지 박물관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마을박물관 운영진으로 대부분 용현2동·5동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금고 마을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다. 하지만 산책을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전에 없던 새로운 건물에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와 마을큐레이터의 전시 해설을 듣고 난 후, 주민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아, 토지금고가 그런 것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마을큐레이터의 설명에 본인이 토지금고에서 살아왔던 이야기를 보태고 보태 전시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벌써 다음 전시를 궁금해 하기도 한다. 이 작은 컨테이너 안에서 주민들은 옛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서로의 기억을 공유하기도 하고, 마을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개관 후 3개월, 짧은 기간 동안 작은 컨테이너는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마을박물관은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사랑방이 되었다. 낡은 앨범 속 빛바랜 사진에서 떠오르는 옛 기억에 미소를 짓게 되는 것처럼, 마을박물관은 옛 기억을 추억하고, 서로의 기억을 공유하며, 늘 함께하고 있었지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마을의 소소한 이야기를 통해 웃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마을박물관은 주민들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폐쇄적이고 고립되어있어 그 어떤 사업도 진행하기 힘들었다는 토지금고의 닫혀있던 문을 연 것이다.

토지금고 마을박물관에서 시작된 지역박물관의 새로운 형태인 마을박물관은 앞으로도 계속 남구 곳곳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박물관은 남구청과의 협약을 통하여 남구 소재 행정동의 신청을 받아 마을박물관을 확대

할 계획이다. 이러한 마을박물관이 하나 둘 모여 남구의 지역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한다면 남구의 역사·문화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규모가 커야지만, 국보급 유물을 소장하고 있어야지만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문학, 예술 등 순수학문을 주제로 해야만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번 토지금고 마을박물관과 마을큐레이터를 통해 박물관과 인문학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마을 주민들 스스로 살터이자 일터인 생활공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이끌어 내는 것, 이러한 마을에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 나아가 생활공간의 공동체를 스스로 꾸릴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박물관과 인문학의 역할인 것이다.



# 인천의 인구변화로 바라본 인천의 포용성

글 • 이준한(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용광로 대 해불양수

미국에 '인종의 용광로'(melting pot)가 있다면 인천에는 '해불양수(海不讓水)'가 있다. 미국은 원주민이 살고 있던 평화로운 땅에 백인이 몰려오더니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흑인은 물론 황인까지 불러들여 다양한 피부색이 서로 섞이는 인종의 용광로가 되었다. 미국은 200여 년 동안 세계의 경찰국가요 최고 부자나라로 성장했다. 그 긴 세월동안 미국의 인구구조는 서서히 바뀌어 점차 백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라티노(중남미 계열), 흑인, 아시아계가 합하여 과반을 차지할 때가 머지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미국에서 인종갈등은 사라지지 않아서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의하여 범죄인으로 오인받아 사살당하는 일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건 이상 발생한다. 그래도 미국에서 2008년에는 드디어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고 곧 라티노 계열의 대통령 탄생도 예고하고 있다.

인천은 해불양수라서 도도히 흐르는 바다와 같이 어느 곳에서 흘러든 물이건 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로 받아들이듯이 어느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건 간에 인천에 오는 사람을 하나로 껴안는다. 인천의 저력은 바로 이렇게 깊고 넓어 모든 물과 땅을 너그럽게 담아주는 바다같은 특성에서 생기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역색이 강한 지방이 서로 똘똘 뭉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제는 글로벌 시대로 통신과학기술의 혁명으로 국가간의 경계도 허물어지는 시절이라 모름지기 서로를

받아들이고 껴안고 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화와 더불어 경제가 발전하고 항구, 공항, 철도가 집약된 환경으로 말미암아 인천에는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인천인구가 2,603,780명이었는데 이제 곧 3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도 인천은 인구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미래가 무궁무진한 것이다.

## 인구증가의 사회적 요인

일반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먼저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적 혹은 생물학적 증감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해당 사회에서 관찰되는 인구의 유입과 전출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다. 한 사회에서 출생이 사망보다 더 많거나 유입이 전출보다 더 많으면 인구의 증가로 이어진다. 물론 그 반대는 인구의 감소로 연결된다. 출생이나 인구의 유입은 자연환경이나 경제환경이 좋을 때 더 늘어난다. 인천은 최근 한국에서 좋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인구증가가 목격되는 광역시도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및 신도시의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교통시설이 확충되면서 인천은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인구를 유인하는데 매력을 발휘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직업과 주택에 접근성이 좋은 인천은 앞으로도 그 가치를 높여갈 것이다.

인구의 사회적 증감은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기도 한다. 과거에는 자연적 기후나 식량 사정이 좋은 곳

을 찾아 다른 나라로 이주했는데 최근에는 경제적 요인이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외국인의 이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는 1980년대 중반까지도 외화를 벌기 위하여 많은 노동자가 외국으로 진출했지만 1980년대 말부터는 외국에서 노동자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인 약 5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한다. 하지만 출입국자료를 기초로 하면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97만 명 수준으로 더 많아진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조선족)이 35.0%로 가장 많았고 중국(15.8%), 베트남(10.1%), 미국(7.1%), 필리핀(4.2%) 등이 뒤를 따른다. 16개 광역시도별로 보았을 때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인천 대신 경기도(31.1%)이고, 서울(27.6%), 경남(6.9%)이다.

### 1940년대 인천시의 인구구조

이제 인천이 어떻게 해불양수가 되었는지 살펴보자. 대한민국의 인구총조사는 독립과 정부수립이라는 혼란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뒤 194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실시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를 시발점으로 삼는다. 1949년 인구총조사에서 인천관련 통계로는 국적별 인구가 유일했다. 1949년 인천시에는 남성이 136,175명이었고 여성이 129,592명으로 도합 265,767명이 거주했다. 1944년 213,833명이던 인천부의 인구가 5년 만에 24.3%가 증가했던 것이다. 1949년 인천에 한국인은 전체의 98.1%(260,778명)를 차지했고, 외국인인 전체의 1.9%로 독립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조사에서 서울의 외국인이 0.6%에 불과했고 전국 평균이 0.1%에 그쳤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인천은 이미 국제도시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조선의 독립으로 인천에 일본인의 자취는 사라졌으나 남북분단으로 이북이나 중국

으로부터 사회주의 체제를 피한 인구가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 1980년대 이후 인천시의 인구구조

세월이 흘러 1981년 7월 인천시는 드디어 인천직할시로 승격했다. 그 전까지 인천의 인구통계는 경기도의 일부로 집계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건너뛴다. 독립이전은 물론 건국초기의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인천이 이미 국제도시였다는 점이 분명하지만 1980년대 이후 집계된 출생지별 인천 거주자 통계는 인천이 전국 각지로부터 인구를 유인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총조사이기 때문에 인천직할시 통계는 1985년에 처음 집계되었으며 관련통계가 아쉽게도 2005년에는 집계되지 않았다.

〈표 1〉 1985년 이후 출생지별 인천인구 (단위 명, %)

	2010	2000	1995	1990	1985
계	2,603,780	2,466,338	2,276,135	1,794,162	1,384,916
서울	11.38	11.25	10.57	9.97	8.75
인천	41.71	40.16	39.61	36.37	36.88
경기	9.14	9.31	9.23	9.97	13.71
강원	3.98	4.10	4.15	4.10	3.70
충청	11.21	12.40	13.30	13.78	13.96
호남	11.98	12.33	12.32	11.81	11.12
영남	8.31	8.10	8.24	8.10	7.89
제주	0.3	0.26	0.24	0.26	0.23

〈표 1〉은 1985년 이후 출생지별 인천인구를 요약하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2010년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먼저 인천에는 가까운 지역으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즉 호남 출신이 11.98%로 많은 편에 속했고 충청 출신이 11.21%이었으며 영남 출신이 8.31%이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인천과 더 가까운 충청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호남 출신보다 더 컸다. 1985년에는 충청과 호남 출신이 13.96% 대 11.12%이었는데 1990

년에 13.78% 대 11.81%, 1995년에 13.30% 대 12.32%로 충청의 우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2000년 충청과 호남 출신이 12.40% 대 12.33%였는데 2010년에 11.21% 대 11.98로 역전이 이루어졌다. 또한 서울에서 태어나 인천으로 옮겨온 인구는 8.75%(1985년)에서 9.97%(1990년), 10.57%(1995년), 11.25%(2000년), 11.38%(2010년)로 세월이 갈수록 점차 증가했다. 이에 비하여 인천에서 거리가 더 멀리 떨어진 강원과 제주의 출신은 합해서 5% 미만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인천에서 태어난 인천인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을 끈다. 그래도 인천에서 태어난 인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 36.88%에서 1990년 36.37%, 1995년 39.61%, 2000년 40.16%, 2010년 41.71%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도 매우 흥미롭다. 인천인의 정주성도 향상되는 동시에 해불양수라는 정체성도 유지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 주목을 끄는 것은 인천에 북한출신이 1995년에 48,010명으로 2000년에는 44,572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분단 이후에 남하하여 인천에 뿌리를 내렸던 북한출신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감소하는 중이다. 앞으로 이 통계는 급감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인천의 외국인인 입국연도별로 볼 때 2005년에는 전국의 6.86%에서 2006년에는 8.14%, 2007년에는 12.16%, 2008년 18.88%, 2009년 17.58%, 2010년 18.5%으로 증가했다. 앞으로도 이 통계는 점증할 것이 확실하다. 어찌 보면 해불양수의 도시에서 분단과 이산 및 다문화의 아픔을 달래줄 국가 지도자가 탄생하는 것을 기대할만하다. 인천의 지도자들이 충청과 전라 및 경기에서 태어난 뒤 인천에 뿌리를 내려서 인천과 국가에 봉사하는데 성공해 왔기 때문이다.

# 인천과 인연이 된 사연

이병무(전 한국유리 근무)

매순간 바쁘게 돌아가는 삶에서 벗어나 숨고르기가 필요한 우리.  
지난날의 묵혀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섬을 가져보면 어떨까.  
“2015세계 책의 수도 인천” 행사의 하나로 기획된 기록문화 특별전에  
36권의 일기를 전시하신 이병무 선생님을 인터뷰하고자 한다.  
일기로 기록된 인천의 옛 모습도 만나고 선생님과 인천 1960년~1970년  
으로 여행을 떠나자.



## 이병무 선생님 소개

충북 청원군 문의면이 고향이신 선생님은 중등학교 2학년 때 6·25전쟁이 발발. 난리 통에 학업을 잇지 못했다. 종알이 빗발치던 군 생활을 전역이라는 것도 없이 이후 4년 8개월을 복무하고 그 후 경찰 시험에 합격. 24기 경찰로 3년 근무하였다. 사촌의 소개로 인천 만석동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인천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1963년 입사할 당시 경제개발이 한창 진행됨에 따라 유리산업이 기간산업으로 육성되고 생산량도 증가할 때였다. 안면도에서 100년간 채취할 수 있는 모래를 불과 20년 만에 다 팠을 정도였다고 한다.

한국유리는「대성목제」, 「동양방직」과 더불어 손꼽히는 큰 기업체였고 한국유리공장의 굴뚝만 봐도 못 여성들이 시집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인천지역에서 대우가 좋았다.

직원의 구성은 인천 토박이보다는 전국에서 모인 타 지역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연령별로도 젊은 나이부터 아버지뻘 되는 분까지 3교대로 함께 작업을 하였다. 특이한 점은 요즘처럼 공채라는 것은 없었고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리 계장직으로 있을 때 처음 받았던 급여는 쌀 세가마니 정도였지. 그 시절엔 많은 보수였지. 또 기억에 남는 일은 회사에서 일 년에 두 번씩 관광을 보내주고 또 송도 유원지에서 가족단위로 휴가를 보내도록 경비도 대주었지.’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는 1960년 이후 인천지역이 성장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 기억 속 풍경

그가 기억하는 인천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 대부분이 염전과 논밭들이었고, 그 후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으로 주택도 지어지고 건물도 들어섰다. 지금은 옛날만 못하지만 동인천은 인천의 핵심지역으로 기억한다.

대부분 타지역 사람들이었고, 서로 생업을 위해 이주한 사람들이다 보니 서로를 위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한다.

## 일기장 서른여섯 권

6·25 전쟁으로 공부를 해야 할 시기에 더 이상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었다. 공부를 못한 것이 한으로 남아 평생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일기의 내용은 개인사뿐 아니라 시사, 경제, 사회문화를 총망라 일기에 자신의 견해를 기록하였다. 하루하루 쓰게 된 일기가 36권이 되었다. 한국유리 다니던 시절 아침저녁 없이 새벽일 나가게 된 때에는 일기를 쓸 기력조차 없이 바쁘고 힘든 일정이었다. 그때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기를 쓰고 있다. 너무 바쁘고 힘든 시절에는 밤낮이 바뀌게 되어 낮에 선잠을 자야 하는데 첫째 아이가 울어 잠을 못 잘까봐 집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게 된 것이 아직까지 기억난다고 하시며 미안한 마음을 웃으며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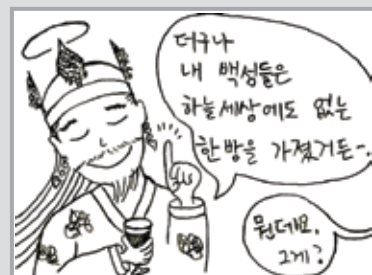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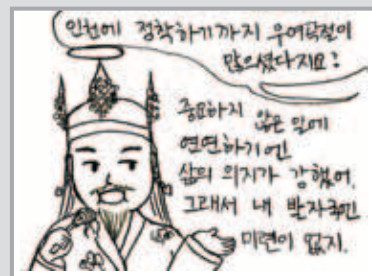
선생님은 현재 송의 4동 경로당에서 노인회장직을 맡고 계신다. 인천에는 타지 인들이 많다. 어떤 이유로든 비록 타지에서 왔지만 인천을 있게 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금 인천에 우리가 살고 있다.

글 • 최정미(자원봉사자)

Yami Cartoon

## 비류와의 저녁식사

조유미(전시교육부)



## 한국 근대문화의 발상지 - 인천

# 근대 공연장의 출발, 인천 협률사(協律舍)

글 · 강옥엽(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공연장은 극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극장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최초의 극장을 가진 나라는 그리스로 서기전 5세기 무렵에 이미 반원형의 장소에 유자형(U字形)으로 관중이 앉을 수 있도록 목조무대를 세운 야외극장이 있었다. 1백년 쯤 뒤에는 비교적 과학적 시설을 갖춘 아테네의 디오니소스극장을 비롯해 그리스 전역에 40여 개의 극장이 세워졌다. 그로부터 1세기 뒤에는 석조극장까지 세워질 정도로 서양에서는 매우 일찍부터 극장이 발달하였다.

### 인천 개항 후 공연장의 단초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개항기에 와서야 극장이 세워졌다. 고려시대에 산대(山臺)라는 가설무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전통극이 야외놀이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옥내 극장이 발전되지 못했다.

현재까지 인천 지역 문화계에서는 1895년 개관한 인천 경동의 협률사(協律舍, 애관의 전신)가 1902년 서울 정동에 문을 연 협률사(協律社)보다는 7년, 이인지 이 1908년 7월 종로 새문안교회 터에 창설했던 원각사(圓覺社)보다 14년이나 빨리 개관한 국내 최초의 공연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더구나 서울 협률사와 원각사가 관주도로 황실과 국고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반면, 인천 협률사는 부산 출신 사업가 정치국(丁致國)에 의해 설립된 첫 사설극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인천항토사의 귀중한 자료인 고일(高逸)의 『인천석금』(1957)과 최성연(崔聖淵)의 『개항과 양관 역정』(1959)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공연장 설립자로 정치국을 모두 지목하고 있지만, 개관 연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은 사실 없다.

고일에 의하면 “인천의 부호 정치국은…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주해 와 성공한 재산가이다… 그는 용동에 창고 같은 집을 지었다. 이것이 우리 손으로 된 최초의 극장 협률사(協律舍)이다”라 했고, 최성연 역시 “그 당대 인천의 부호 정치국씨가 운영하던 협률사라는 연극장이 있었다. 협률사는 오늘의 애관 전신으로서, 청일전쟁 중 지었던 단층 창고를 연극장으로 전용하였다”라 서술한데서 추측하고 있다.

협률사의 후신인 애관



협률사 공연



주로 일본 영화를 상영했던 표관



옛 공회당 자리에 있었던 시민관

이렇게 1895년 창립설은 최성연이 '청일전쟁 중 있었던 단층 창고를 연극장으로 전용하였다'라는 서술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정확한 연대는 아니라 하겠다.

### 성격이 다른 두 협률사(協律舍/協律社)

'협률(協律)'은 한자 그대로 '음악의 조화를 이루는 것' 정도로 해석된다. 아마도 오늘날의 '공연'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미 조선 초기 이래 궁중에서 연주하는 음악과 무용에 관한 일을 담당한 관청인 장악원(掌樂院) 소속의 협률랑(協律郎)이라는 직책이 존재하고 있었고, 구한말에는 협률과(協律課)가 교방사(敎坊司)로 승격되는 기사도 보이고 있다. 또 협률과 관련해서는 협률창희(協律唱戲), 협률사(協律司), 협률원(協律院), 협률회사(協律會社) 등도 나타나고 있다.

공교롭게도 두 지역의 '협률사' 한글명은 같지만 인천 협률사(協律舍)와 서울의 협률사(協律社)의 한자어는 서로 다르게 명기되어 있어 그 성격이 달랐음을 알 수가 있다.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은 오히려 인천의 협률사(舍:집)가 더 적합하다는 추정도 할 수가 있다. 더구나 현재까지도 협률사(社)라는 것이 부서의 이름인지, 공연장의 이름인지, 공연단체의 이름인지에 대한 판단도 애매모호한 상태라 인천 협률사와 서울 협률사의 성격을 동일시할 수도 없다.

우선, 협률사(社)라는 이름은 1860년을 전후하여 판소리의 명창들이 중국 청나라의 협률창희(協律唱

戲)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에서 상연한 내용은 주로 판소리·줄타기·재담·농악 등이었고 창극은 상연되지 않았다. 1902년 고종황제의 즉위 40년을 기념하기 위한 경축행사에 고종의 칙허를 얻어 회대(무대)를 만드는 한편 이를 관장하는 협률사(協律司)를 두었다.

협률사(司)에서는 가무녀(歌舞女)를 조직하고 전국의 명인·명창을 서울로 모았는데, 그 수가 170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급료를 받았다. 그러나 그 해 콜레라 만연에 이은 농산물의 흉작, 그리고 일본·러시아 등과의 국제적 문제로 협률사(司)도 협률사(社)로 바꿨다. 1903년에는 경영권이 민간의 손으로 넘어가 사실극장으로 변모하였다. 1908년을 전후해서 이인직 등이 중심이 되어 이름을 원각사(圓覺社)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는 주로 신극만을 상연했다. 이에 전속 창극단체였던 협률사(社)는 지방을 순회하다가 결국 해산되었다.

### 협률사의 변천

1897년 한국 내 최초의 일본인 전용극장인 인천좌(仁川座)가 지금의 송학동 2가에 가설극장으로 신축되었다. 이후 1905년 가부키좌(歌舞伎座)가 지금의 사동에 개관하였고, 1909년 개관한 표관(瓢館)은 활동사진 상설관으로 일본 영화를 주로 상영한 가설극장이었는데, 협률사의 후신인 애관이 서양영화를 상영했던 것과는 반대였다.

광복 후에는 동방, 인영극장 등 영화 전문 상영관

이 생겨났고, 1960년대 이후에는 애관, 동방, 시민관이 개봉관으로, 문화, 장안, 인천, 미림, 오성, 중앙 등이 재개봉관으로 운영되었다. 세계극장, 키네마극장 등과 더불어 50대 이상 퇴신 분들에게 아련한 추억의 명소로 기억되고 있다. 미림극장은 최근 실버극장으로 재개관하였지만 시대적 환경이 변하여 TV는 물론 인터넷, 비디오, 심지어 모바일 폰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예전과 같은 특수를 기대할 수 없는 것 같다.

협률사(舍)는 신파극 '육혈포 강도'의 인천 공연을 왔던 '혁신단'의 임성구 단장의 권유에 의해 1912년 축항사(築港舍)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다. 부지 48평, 2층 건물의 조선인 극장으로 정원 500명의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1921년에 애관(愛館)으로 명칭을 다시 변경했고, 1927년(10.10)에 건물을 신축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극작가 진우촌·함세덕, 연기자 정암, 무대장치가 원우전 등 기라성 같은 인천 문화계 인물들이 활동하고 배출되었다.

애관은 당시 영화 상영을 주로 하고 연극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공연장을 운영했지만, 다목적 공간이었다. 조선인 극장으로 대규모 집회나 상징적 문화 행사, 집단의 중요 행사를 개최했던 공간이었기에 공공시설 이상의 의미가 있던 사회적 장소였다 할 수 있다.

근대 공연장의 출발지가 인천이었던 사실은 오늘날 인천 문화예술의 현주소를 되돌아 보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말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 헌책에 새겨진 수많은 시간들 배다리 ‘아벨서점’

중3 어느 날이었다. 참고서가 싸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과 배다리 헌책방 거리로 향했다. 이른바 ‘뽕땅’을 치고 남은 돈으로 ‘대동학생백화점’에 가서 쫄면을 먹고 음악도 듣기로 했다. 말하자면 배다리 헌책방 골목 순례는 오프닝 게임인 셈이었다.

배다리 거리는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볼 만하고 놀 만했다. 우리는 이후 일정을 접고, 오후 내내 그 거리를 쏘다녔다. 쫄면도 먹고, 헌책방에서 돌면서 각자 문고판 소설을 몇 권씩 샀다. 그때 나는 헤르만 헤세가 지은 소설을 두 권 챙겼다.

몇 년 후, <독일문학사>라는 책을 사러 그 골목길을 다시 찾았다. 청계천 헌책방거리에서도 찾지 못한 책이 구석에 턱하니 꽂혀 있었다. 그 후로도 “심봤대!”를 외치면서 단골이 되었다. <아벨서점>과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었다.

인천광역시 동구 배다리는 헌책방 골목이 있는 곳으로 이름나 있다. ‘배다

리’라는 명칭은 19세기말까지 수문통 갯골과 이어지는 큰 갯고랑에 ‘배가 달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불리었다. 그때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때 배다리는 제물포항의 개항과 동시에 번성했던 지역이었다.

헌책방 골목은 1950년대부터 형성되었다. 해방 직후 일본인이 버린 책이나 한국전쟁 때 피난 과정에서 버려진 책들이 중고 책으로 쏟아졌다. 초창기에는 이동식 리어카를 세워놓은 책방거리가 만들어졌다. 현재 헌책방 골목 입구부터 창영동 인천세무서 앞길에서 우각로를 따라 가게 형태로 자리 잡았다. 헌책방 골목에서 가장 처음에 생긴 <집현전>은 1953년에 문을 열었다. 1970~1980년대에는 사십 군데가 넘는 책방이 있었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다. 현재는 여섯 군데만 남아 헌책방의 맥을 잇고 있다.

1973년 11월에 문을 연 <아벨서점>. 책방에 들어서면 은은한 음악이 흐른다.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음(音)은 책들이 지내온 세월을 연출하는 엑스트라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 책장 모퉁이를 돌고돌아 낯선 곳에 발길이 닿으면 일탈에 성공이다.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에도 발길이 머물 때가 있기 때문이다. 생각지 못한 황재도 누릴 수 있다.

책방 안에는 나무토막을 뚝 잘라놓은 의자가 두어 군데 있다. 그루터기에 앉아 책을 읽다 보면, 셀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마지막 장면이 떠오른다. 평생에 걸쳐 읽든지 내놓으라고 하던 소년이 앉아 쉬는 곳, 이 책방은 혹시 그 그루터기가 아닐까 싶다. 헌책방 귀퉁이, 헌책 냄새가 유난히 풀 풀 날리는 곳, 그루터기 의자는 시간이 머물렀다 가는 정거장이다.

〈아벨서점〉은 곽현숙, 김경숙 씨가 지킨다. 이 서점에서는 좀 깎으려고 애써봤자 헛수고다. 아주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절대로 깎아주지 않는다. 가끔 어디서든 깎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 억지로 깎아달라고 떼를 쓸 때가 있다. 그러면 여지없이 주인장들한테 퇴짜를 맞는데, 그럴 때마다 책에 대한 주인장들의 자존심을 느낄 수 있다.

주인장들은 늘 바쁘다. 사람들이 찾아온 책을 계산할 때 빼고는, 대부분 책을 나르거나 책장 사이를 누비며 책을 쏜다. 잠깐 실 때도 없이 끊임없이 손발을 놀린다. 대개 책에 쓰여진 메모나 낙서를 지운다. 책장을 넘기면서 낙서된 곳을 찾고, 넘적한 솔로 지우개똥을 털어낸다.

헌책에는 못사람들의 흔적이 많다. 그들의 숨결, 손길, 눈길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책장이 넘겨지지 않을 때는 손가락에 침을 묻히기도 했겠지. 보던 책을 뒤집어 놓고 밥을 먹고 왔을 테고, 약속시간이 되어 그대로 나갔다가 왔을 수도 있고, 다른 책에 밀려 한동안 잊혀진 때도 있을 것이다. 헌책방은 사람살이의 고단함과 행복이 그대로 묻어나는 곳. 싹을 틔운 나무가 크게 자라 책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책에 녹아들었을까.

휴일이면 배다리 헌책방 골목길은 시간을 기억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들이 꼭꼭 내딛는 발걸음에서 시간이 오롯이 묻어난다. 학창시절에 헌책방을 찾은 이들이 잊지 않고 그 곳을 찾는 것이다. 세월을 단골삼아 헌책방을 찾는 이들에게 헌책방 거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들과 함께 헌책방을 찾는 아이들에게도 그 시간은 미래가 될 것이다.

〈아벨서점〉은 사십 년 넘게 일상의 길목에서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은 〈아벨서점〉. 〈아벨서점〉을 거쳐간 수많은 책들은 사유의 그늘을 깊게 드리울 것이다.

글 • 김시연(시인)



# 우리가 바라는 인천

## 역사와 함께할 미래의 인천

역사 속의 인천은 머나먼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과거 조상들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때를 타며 긴 세월을 지내오면서 그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과거, 해상교류의 중심지로써 또 호국의 공간, 군사적 요충지로서 현재에도 교통, 무역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이 상당히 막중하다.

인천 고유의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수많은 섬이 있는 아시아의 지중해 웅진, 수많은 근대 유적들로 근대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한 개항장과 차이나타운, 많은 즐거움을 주는 낭만의 상징 월미도는 인천 관광 유치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미래에도 그 입지는 더욱이 뚜렷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에서 우리 민족의 깊은 역사와 함께 다양한 문화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그와 동시에 세계적으로도 이미 동북아의 허브공향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인천의 랜드마크인

인천국제공항과 미래의 첨단 도시를 구현한 송도 국제도시 또한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러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인천의 자랑스러운 면모와 그 귀중한 가치는 인천 시민으로써의 큰 자부심을 갖게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인천 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인천시민들의 예술표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문화예술의 국제 교류를 통해 미래 인천 문화예술의 국제적인 역량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더

글 • 박재홍(제물포고), 김현진(예일고)  
멘토 • 문은희(숙명여대)

불어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록 페스티벌이나 송도 맥주 축제와 같은 문화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의 등 다양한 문화 사업 유치로 미래 인천 문화 사업 발전에 큰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런 인천의 미래를 생각하자면 끊임없이 발전하는 인천의 모습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소비와 자연 파괴의 여파로 심각한 재앙이 닥쳐오고 있는 요즘, 우리 민족의 소중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인천을 단지 과도한 발전에 눈이 멀어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 할 가치를 외면하는 무분별한 개발은 꼭 피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 옛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아 간직해온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인천을 그저 현대 방식으로만 뜯어고치기보다는 우리 조상의 역사를,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조화를 통해 발전을 해나가는 것이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인천시의 로고는 인천의 'ㅇ'과 '川', 파도를 타는 끊임없는 움직임과 무한한 잠재력을 상징한 것이다. 이렇듯 끊임없는 발전을 이뤄내고 그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인천이 큰 발전을 이뤄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인천시민의 노력이 있었다. 그렇다면 미래에도 역시 인천의 시민들이 인천 거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인천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화합을 넘은 도약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 또한 인천 시민으로서 젊음, 미래의 상징인 인천의 더 큰 발전을 지원하고 또 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



인천국제공항



인천락페스티벌

## 인천아, 넌 어떤 인천이 되고 싶니?

인천의 과거! 인천의 현재! 인천의 미래! 이신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인천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최초”가 생각  
나는데요.

한국 최초 서양식 공원인 자유공원, 최초 풀면의 근원지, 최초의 야구의 파  
생지 등등…….

이러한 역사를 겪어왔기에 우리 인천이 더욱 크게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있  
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역사를 보고 느끼며 자라왔을 때 느낀  
점은 “만약에 우리가 더 커서 성인이 된다면? 그럼 인천은 어떻게 발전해 있  
을까?”라는 호기심이었어요.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보아요.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교육의 인천? 문화의 인천? 스포츠의 인천? 저는  
그중에서 축제의 인천이 떠올랐어요. 송도의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라든지  
동인천역 바로 앞에 있는 짜장면 거리인 차이나타운을 시작으로 남녀노소  
다가오는 인천대공원 축제, 그리고 올해로 정명 800주년이 된 계양구 불꽃

놀이 축제, 또 떠오르는 샛별인 서구 드림파크 국화 축제 마지막으로 청년들  
이 뜨겁게 좋아하는 대학 축제 등 이런 축제 들이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타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거대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축제가 생기면서 느낀 것은 뭐랄까 인천하면 아! 문화 도시!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직까지 청소년들에게 인천은 범죄 도시..? 라는 좋  
지 않은 이미지를 띄고 있으니까 이런 즐거운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  
가 성인이 돼서도 남기고 증진시킨다면 인천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미래지향  
적인 인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문화와 축제하면 되게 기쁘  
고 신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행사가 내 고향 인천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이 무척 자부심이 느껴져요!

우리 함께 꿈꿔 봐요! 인천, 넌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니?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 겨울방학엔 하하 호호 빵 터지는 박물관

겨울호빵 교육프로그램 안내

일시 저학년 1월 7~8일 10:00~11:20 · 고학년 1월 21~22일 10:00~11:40

대상 초등학생 100명 (회당 25명 내외)

내용

대 상	주 제	내 용	소요시간
저학년	칙칙폭폭! 인천으로 떠나는 기차여행	활동안내 - 연극놀이 - 기차모형 만들기 - 발표 및 뒷정리	80분
고학년	한옥에서 숨은 그림 찾기	활동안내 - 전시실활동 - 한옥의 문과 창호 탐구 - 꽃살문 꾸미기 - 발표 및 뒷정리	100분

아이들은 ‘겨울’하면 무엇을 떠올릴까? 성탄절이 있는 12월엔 일년을 기다려온 근사한 크리스마스 선물과 흰 수염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떠올릴 것이고,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엔 한 살을 더 먹어야하기 에 어쩌면 떡국을 떠올릴지 모르겠다. ‘겨울’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하필 호빵일까? 의문이 들겠지만 ‘겨울호빵’에는 아주 재미있는 뜻이 숨어있다.

많은 아이들이 아직도 박물관이 지루하고 재미 없는 공간이라 생각하는데, 방학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박물관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꿔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준비했다! ‘겨울방학엔 하하 호호 빵 터지는 박물관’ 이름만 들어도 재미있지 않은가. 방학기간 만큼은 아이들이 박물관에서 많이 웃고 즐기다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붙인 이름이다.

‘겨울호빵’은 2013년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여름수박’(여름방학엔 수영장보다 박물관)과 같이 방학기간 동안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시도되는 어린이 대상 겨울 방학 프로그램이다. 처음 시도되는 만큼 기대감도 크고, 앞으로의 귀추도 궁금해진다.

학기 중 운영되는 초등 교육 프로그램 <가재 박물관으로> 가 끝나면, 어딘지 모르게 박물관이 허

전하고 적막감마저 감돈다. 아마도 학기 내내 활기찬 아이들을 보며 에너지를 얻다가 조용해진 전시실이 익숙지 않아 그럴 것이다. 이번 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박물관을 다시 찾아주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무더운 여름방학, 박물관이 수영장보다 시~원한 여름을 선사해줬다면, 올 겨울에는 호빵보다 더 ‘핫’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추위를 다 날려줄 것이다. 아직도 추위에 웅크리고 있다면, 인천시립박물관으로 가자!

겨울방학을 맞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으로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줄 뿐만 아니라, 겨울 내 매서운 추위로 금세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글 • 임예나(전시교육부)





# 선사시대 이야기 달력

## 어린이 발굴체험교실 고고학 올림픽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방학이 돌아왔다. 요즘 어린이들은 추운 날씨라고 집에서 웅크리고 앉아 TV를 보며 굴만 까먹지는 않는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는 학기 중보다도 오히려 바쁠 수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 순례로 분주하지 않으면 평소 할 수 없었던 체험을 위해 집 밖 활동이 늘어나기도 한다. 이 체험이 어린이에게는 고만고만한 놀이나 공부여서 별반 새로운 것이 없고 엄마, 아빠에게는 매번 색다른 내용을 찾는 고민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검단선사박물관이 준비했다. 여러분을 위한 겨울방학 초대장을.

첫 번째, 선사시대 이야기 달력으로의 초대. '선사시대 사람들의 한해살이는 어떠했을까?'라는 궁금증에 종이공예와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6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어린이 각자의 상상들로 선사시대에 대한 작은 이야기를 만들고 종이, 스티커, 반짝이가루 등 다양한 꾸미기 재료를 사용해 유물 달력을 완성한다. 집으로 돌아가서도 자신의 방에 놓여있는 달력을 한 달 한 달 넘겨보며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이 보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어린이 발굴체험교실 고고학 올림픽으로의 초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조별 활동과 겨루기를 통해 발굴, 유물복원을 체험하는 검단선사박물관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다. 처음 만나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꼬마 고고학자가 되어 흙 속 토기 조각을 살살 털어 찾아내기 시작한다. 찾아낸 토기

조각의 크기를 재기도 하고 모양대로 그림을 그린 후에는 종이테이프와 접착제를 이용하여 실제 발굴 현장에서처럼 깨진 조각들을 하나로 만들어낸다. 모든 과정은 자기 모둠의 친구들과 힘을 합쳐 이루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어진다. 마지막 고고학 퀴즈대결까지 와~와~ 하는 요란한 함성으로 지루할새 없이 지나간다.

'선사시대 이야기 달력'과 '어린이 발굴체험교실 고고학 올림픽'의 초대장을 잘 읽어보셨는가? 그럼, 이제 검단선사박물관으로 한번 떠나보자!

글 • 안성희(검단선사박물관)

### 선사시대 이야기 달력

기간 1월 13일(수), 1월 19일(화), 1월 20일(수)

오전10~12시, 오후2~4시

장소 검단선사박물관 체험학습실 재료비 1인당 5,000원

대상 6세~초등학교 2학년

내용 선사시대 한해살이를 상상하며 이야기 달력 만들기

신청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문의 032-440-6796

### 어린이 발굴체험교실 고고학 올림픽 안내

기간 1월 8일(금), 1월 15일(금), 1월 22일(금)

오전10~12시, 오후2~4시

장소 검단선사박물관 체험학습실 재료비 1인당 10,000원

대상 초등학교 3~6학년

내용 조별활동을 통해 발굴과정 및 유물복원 체험하기

신청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문의 032-440-6796



# 박물관 70년의 풍경 1946-2016

2016년은 박물관 개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6



1953



1990



2007



## 시립박물관

### 가족교육 우리 가족 박물관 가는 날

**주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만들기 체험  
**일시** 2015. 12. 19(토) 10시, 1시  
**장소** 시립박물관 3층 해님아방  
**대상** 어린이(5~12세) 동반 가족  
**신청** 박물관 홈페이지 접수  
**문의** 032-440-6736



### 작은전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주제** 근대기 한국의 국가 상징 이미지와 디자인 변화 소개  
**기간** 2015. 9. 22(화)~2016. 2. 21(일)  
**장소** 시립박물관 2층 작은전시실

### 청소년교육 상상놀이터

**주제**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특강  
**일시** 2016.1.9~23, 매주 토요일  
 (\*교육일시는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장소** 시립박물관 해님아방  
**대상** 중학교 3학년 청소년 40명  
**신청** 2015.12.1~20, 박물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문의** 032-440-6749

### 인천시민 인문학강좌

**주제** 동아시아의 소통과 책  
**기간** 2015. 8~12월 중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후 2~4시  
**장소** 시립박물관 3층 해님아방  
**대상** 누구나  
**내용**

날 짜	강 의 주 제	강 사
8/25	송 사신이 본 고려 사회의 이모저모 : 『고려도경』	이 진 한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9/22	조선시대 대일외교의 지침서 : 신숙주의 『해동제국기』	강 문 식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0/27	표류 조선인의 중국 견문록 : 최부의 『표해록』	서 인 범 (동국대학교 사학과)
11/24	가고 싶지 않았던 처목의 사신길 : 연행록	우 경 섭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2/22	청대의 서적과 조선	이 준 갑 (인하대학교 사학과)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공동 주최 사업

###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일시** 2016년 2월 21일 13:00~19:00  
**장소** 시립박물관 우현마당  
**내용**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 검단선사박물관

### 가족체험 점토공예 속 신기한 유물 이야기

**기간** 9~12월 두 번째 토요일, 오후2~4시  
**장소** 검단선사박물관 상설전시실, 체험학습실  
**내용** 선사시대 유물을 장신구로 만들기  
**대상** 6세~초등학교생 자녀 동반 가족  
**재료비** 1인당 5,000원  
**신청**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문의** 032-440-6796

### 방학교육 선사시대 이야기 달력

**기간** 1월 13일(수), 1월 19일(화), 1월 20일(수)  
 오전10~12시, 오후2~4시  
**장소** 검단선사박물관 체험학습실  
**내용** 선사시대 한해살이를 상상하며  
 이야기 달력 만들기  
**대상** 6세~초등학교 2학년  
**재료비** 1인당 5,000원  
**신청**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문의** 032-440-6796

### 방학교육 어린이 발굴체험교실 고고학 올림픽

**기간** 1월 8일(금), 1월 15일(금), 1월 22일(금),  
 오전10~12시, 오후2~4시  
**장소** 검단선사박물관 체험학습실  
**내용** 조별활동을 통해 발굴과정 및  
 유물복원 체험하기  
**대상** 초등학교 3~6학년  
**재료비** 1인당 10,000원  
**신청**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문의** 032-440-6796

###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체험 달이 떠오른다, 가자

**기간** 2월 18일~2월 21일  
**장소** 검단선사박물관 하늘정원, 안내데스크  
**주제** 2016 정월대보름맞이 부럼깨기와 전통놀이  
**대상** 일반시민 누구나  
**신청** 별도 신청과정 없음  
**문의** 032-440-6796

## 한국이민사박물관

### 광복 70주년 및 한러수교 25주년 기념특별전

**주제** 사할린 한인의 망향가  
**내용** 사할린징용, 이중징용, 귀국노력,  
 영주 귀국 후 정착 조명  
**기간** 2015년 9월 21일 ~ 2015년 12월 31일  
**장소** 한국이민사박물관 기획전시실 및 영상

## 컴팩스마트시티

### 전시 사라진 섬, 파문한 바다, 태어난 땅



**주제**  
 고지도 등 문헌에 나타난  
 인천 매립 역사를  
 도시계획사적 연구 성과  
 와 함께 고찰하는  
 전시로 인천의 매립 역사  
 와 향후 인천 도시 발전  
 계획을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

**일시** 2015. 8. 25 ~ 2016. 4. 3

**장소** 컴팩스마트시티 2층 기획전시홀

**관람료** 무료

### 도심 속 클래식 산책 컴팩 커피콘서트



**주제**  
 인천 시민들에게 클래  
 식 공연을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삶의 여  
 유를 찾고 재충전의  
 기회를 드리고자 마련  
 한 문화 프로그램

**일시** 12월 30일(수), 12시 20분~13시

**장소** 컴팩스마트시티 1층 로비

**대상** 일반시민 100명

**신청** 선착순 전화 접수(무료)

### 토요시네마

**주제** 시민들의 영화예술 향유를 위해 매일  
 첫째주 - 다양성영화, 둘째주 - 고전영화,  
 셋째주 - 도시영화, 넷째주 - 애니메이션,  
 다섯째주 - 환경영화 상영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컴팩스마트시티 3층 영상관

**대상** 회당 일반시민 100명

**관람** 선착순 100명 (무료관람)



### 아더 크리스마스

**상영일시** 12월 26일 **전체관람가**  
 '산타는 어떻게 하룻밤에 20억개의 선물을 배달할  
 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완벽한 크리스마스를 위  
 한 '산타의 선물 배달 비법'이 공개된다! 천 년의 역  
 사를 이어온 산타 왕국의 임무는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단 하루 동안 전 세계로 20억개의 선물을 배달  
 하는 것! 하지만 올 겨울, 실수로 한 아이의 선물이  
 배달되지 못하는 사고가 벌어지고, 산타 가족의 막  
 내 '아더'가 이 사실을 알게된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오기 전 마지막 선물을 배달하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선물 배달 마션 임파서블이 시작되는데...

※상기 일정은 전시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① 한국 금계랍(종이봉투) ② 독일 금계랍(오른쪽) ③ 일본 금계랍(왼쪽)

## 금계랍(금계랍, 金雞蠟, quinine)

### 소장 유물

근대, 역사 2실 ① 가로 8cm 세로 10.1cm, ② 높이 14.3cm 너비 5.5cm, ③ 높이 14.1cm 너비 5.1cm

신비의 명약. 침탈자의 약. 인생의 첫 쓴맛.

이 수식어들은 1960년대까지 우리에게 금계랍(금계랍, 金雞蠟)으로 알려진 말라리아약 염산-키니네(퀴닌, quinine)를 지칭하는 말로 우리 박물관에는 총 3점의 금계랍 관련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나 생산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연도를 알기 어렵다.

말라리아는 주기적인 오한과 발열, 근육통과 두통 등을 동반하는 병으로 동양에서는 주로 학질이라고 불렸다. 우리나라의 말라리아는 주로 3일열로 치사율은 높지 않으나, “학을 떼다”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이었다.

이러한 고통을 해결해 준 것이 금계랍이다. 키니네의 음역어인 금계랍은 페루 원주민들이 키나(cinchona)나무 껍질을 이용한 말라리아 치료법을 본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서양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18세기 프랑스에서 염산 등을 이용하여 유효성분을 추출한 근대적 치료약으로 완성시켰다. 이로써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 열대지방으로의 정복활동을 벌이던 서양 열강의 입장에서는 제국주의를 완성시킨 침탈자의 약으로 불리었고, 학질로 고생하던 동양에서

는 강제체의 열병을 치료하는 등 신비의 명약, 성스러운 약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에서 이 약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제중원의 알렌으로부터이다. 당시에는 말라리아의 원인을 몰랐기에 주기적인 열병을 모두 말라리아로 진단했는데, 알렌 역시 이러한 열병의 치료약으로 금계랍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①번의 금계랍 종이봉투에서도 나타난다. 가루약이 들어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유물의 뒷면에는 그 효능을 ‘말라리아(麻刺利亞)’ 등으로 표시하면서도 설명에 “이 약은 서양의 극상품 금계랍인 바, 일학·일학 등 여러 가지 학질과 몸살에 신통한 효과가 있다”라고 적고 있다. 또한 연령대별 복용량도 표시하여 부작용을 줄이고 정량에 따른 근대적 의약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중원에 의해 크게 알려진 금계랍은 인천 제물포의 독일상 고샅키(A. Goeschki)와 세창양행(世昌洋行, Meyer & Co.) 등을 통해서 대량 수입과 판매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들은 600여회가 넘는 광고를 통하여 이 약을 홍보하였다. ②번의 약병은 이러한 독일상인들에 의해 유통되었던 금계랍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전국으로 퍼진 금계랍 덕분에 말라리아는 한동안

위험하고 시급한 질병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들어서 쌀수탈을 위하여 수많은 밭이 논으로 전환되고, 저수지 등 관개시설을 확충하면서 모기가 번성하여 말라리아가 다시 한 번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일제강점기 총독부는 매개곤충인 모기의 방제에 힘쓰기보다 정복지에 키니네를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 흔적이 ③번의 후지사외양행(藤澤洋行)이 판매한 후지산표금계랍(富士山票金雞蠟)으로 남아 있다.

1940년대 일제는 동남아 침공을 본격화하였고, 키나나무의 대량생산지였던 인도네시아 등지를 점령하면서 키니네 생산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미국 등은 클로로퀸 등의 새로운 말라리아약을 개발을 가속화하였고, 1960년대에는 완전히 그 역할을 대체하였다. 이로써 점차 금계랍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특유의 쓴 맛은 아가들에게 젖을 떼게 할 때나 손가락 빠는 습관을 없애기 위해 쓰였던 ‘인생의 첫 쓴 맛’으로 기억되고 있다.

글 · 김동근(전시교육부)